

http://dx.doi.org/10.17703/JCCT.2019.5.1.45

JCCT 2019-2-6

제천시 다문화가정의 사회적 리포지셔닝 연구 : 사회적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The Study for Social Repositioning of Multi-Cultural Family in Jecheon City :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nstruction*

김수완**, 박상혁***

Su-Wan Kim**, Sang-Hyuk Park***

요약 본 연구는 제천시의 다문화 가족을 중심으로 포지셔닝에 대한 사회적 위치 변화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천시의 다문화 가족의 사회적 위치, 사회적 인식의 영향에 따라 정책설계를 분석하며, 1990년부터 2013년까지 뉴스기사, 인터뷰를 분석한 질적분석 방법을 수행하였다. 시간범위는 1990년대 다문화가정의 태동기, 2000~2005년 다문화가정의 양적 성장기, 2006~2011년의 다문화가정의 질적 성장기, 다문화가정의 2012년 이후의 다문화가정의 반감기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 할 수 있다.

주요어 : 다문화 가정, 결혼 여성 이주자, 사회구조, 다문화 정책, 다문화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that what factors affect to the change of social positioning of 'multi-cultural family(MCF)' centered on 'multi-cultural family in Jecheon City using Social Construc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nalyze the social positioning of MCF in Jecheon City, policy design depending on that social positioning and the effect of social perception. Therefore, this research carried out qualitative analysis method that analyzed news articles, legislations and interviews from 1990 to 2013 based on social construction theory. For the purpose, first, the time scope could be divided into four periods such as 'the quickening period in 1990s', 'quantitative growth period from 2000 to 2005', 'qualitative growth period from 2006 to 2011', 'the period of antagonism after 2012' of MCF.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y, women migrants for marriage, social construction, multi-cultural policy, multi-culture

1. 서론

단일민족국가라는 것이 교과서에 자랑스럽게 표현되던 시절이 있었다. 미국사회를 인종의 백화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정도로 단일민족 사상에 대한 인식은 국민들 마음속에 자긍심으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다음과 같은 여러 차례의 변동 과정을 겪으면서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변천 현상은 다음과 같다.

우리 사회는 다음과 같은 여러 차례의 변동과정을 겪으면서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변천 현상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김수완의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학위 논문 (2014) 연구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논문임

**정회원,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교신저자)

***정회원, 우석대학교 군사학과

접수일: 2018년 10월 6일, 수정완료일: 2018년 11월 12일

게재확정일: 2018년 12월 18일

Received: October 06, 2018 / Revised: November 12, 2018

Accepted: December 18, 2018

*Corresponding Author: tndhksrla@hanmail.net

Dept. of Administration, Chung Ang Univ, Korea

첫째, 6.25 전쟁 이후 주한 미군의 주둔과 국제결혼이라는 사회적 현상이 있었다. 미군 주둔지를 중심으로 미군과 한국인 여성의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었다.

둘째, 노동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다. 1960년~1970년대 노동력 수출국이었던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과 학력상승으로 임금수준이 크게 증가하였고, 저임금 노동자의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국내사정으로 인하여 1990년대 들어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시작되었다.

셋째, 한국으로 유입되는 결혼 이주여성의 증가 현상이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한국 여성의 농촌 남성과의 결혼기피 현상 때문에 시작되었다.

이상 세 차례의 변동과정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한발 더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인식 변화 중, 결혼 이주여성의 유입 현상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II. 연구배경

1. 다문화가정의 형성배경

다문화가정은 한국전쟁 직후, 1990년대 이후 두 차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한국전쟁 직후의 다문화가정의 증가원인은 주한미군이다. 이때의 다문화가정은 외국인 남자와 한국인 여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농촌 총각들은 1990년대 이후 남녀 성비 불균형, 이혼향도현상, 사회진체적인 고학력화로 인한 평균 결혼연령 상향화 등으로 배우자를 찾기 어려워 졌다.

1980년대 초부터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이 일어난 것은 이러한 결혼시장 상황을 반영한 것이고, 1990년부터 이루어진 중국 조선족 여성과 한국 남성간이 결혼은 한국 국제결혼의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다[1].

이렇듯 국내 결혼시장의 지역별 불균형은 다문화가정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고, 더불어 동남아 여성들의 국내입국 수단으로써도 결혼이주가 악용되는 등,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게 되어 다문화가정이 하나의 사회집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3. 사회적 구성주의의 태동

Mannheim(1936)은 사회구조의 실재에 대한 단일한 시각은 없다. 그러므로 사회과학은 유용하고, 통찰력 있는 해석적인 과학이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후기 실증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사회적 구성주의 모형을 정책과정이나 정책변동의 분석에 사용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그렇기에 사회적 구성주의 모형을 이용한 선행연구도 국내에서는 많은 편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또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 현상에 대한 새로운 의미부여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구성이 생기거나 기존의 사회적 구성이 가진 정치적 영향력과 이미지가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또 다시 정책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연속적인 과정 속에서 사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4. 사회적 구성주의의 선행연구

정책설계의 복잡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사회적 구성주의 관점 중 대상 집단의 사회형성이론을 가지고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이 정책설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이를 통해 대상 집단의 사회적 형성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형성되며 그것이 정책설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를 정책의 논리, 근거 및 도구의 측면에서 분석했다[2].

결론적으로 정책은 사회적 형성을 통해 만들어진 의미에 대한 해석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대상 집단의 사회적 구성 접근법은 어떤 종류의 정책이 왜 만들어지고 왜 필요한가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이 어떻게 구조화 되는가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제공한다. 이 논문을 통해 정책설계에 있어 체계적인 이해와 이를 지탱하는 가치들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집단의 사회적 인식 전환에 따른 정책 변화를 성매매특별법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사회적 구성주의의 틀을 중심으로 격발기제, 이슈 확장모형 및 지지연합이론과의 결합을 통하여 정책 변화를 설명하는데 보다 포괄적인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정책이 대상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형성을 포괄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정책이 다른 성격의 정책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가치차원에서 정책의 사회적 형성을 통해 만들어진 의미에 대한 해석에 따라 정책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3].

5. 선행연구의 한계점 및 본 연구의 특징

앞서 살펴본 다문화가정 연구와 사회적 구성주의를 활용한 연구들을 정리하면 다음의 한계점이 나타난다. 먼저, 다문화가정의 연구의 경우 다문화 교육지원, 교사의 인식개선 등의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몇몇 연구의 경우 그 결과가 상충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언어나 대화능력은 학교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4], 보육환경에 있어 다언어적 안내표지판의 부족으로 보육환경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연구했다[5].

이는 연구 설계나 분석방법에 차이 등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그 결과가 상충되는 것은 정책적 제언으로써의 역할은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며 결국,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구성주의 모형을 사용해 다문화가정의 소셜 포지셔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제천시의 여론과 사건, 정책설계의 변동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분석해 보고, 다문화가정의 소셜 포지셔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이것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다문화가정의 정책설계를 위해서도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으로써 중국 3명, 일본 1명, 베트남 6명, 캄보디아 1명, 네팔 1명 대상자이며, NGO기관 1곳을 지정 하 연구대상으로 구분하였다

2. 연구 설계

소셜 포지셔닝 연구를 위해서는 주요 사건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다문화가정집단의 시대구분이 필요하다. 시대구분은 1990년대의 '다문화가정의 태동기', 2000년~2005년의 '다문화가정의 양적성장기', 2006년~2011년의 '다문화가정의 질적 성장기', 2012년 이후의 '다문화가정의 반감기'로 나누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례를 분석한다.

3. 자료 수집

인터뷰는 사회과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본 논문의 대상자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변화에 따른 소셜 포지셔닝의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중 주요 정책 대상자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제천시 결혼이주여성과 NGO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4년 6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진행하였으며, 총 12명의 결혼이주여성과 1명의 NGO직원에게 응답을 받았다.

표 1. 면접대상자
 Table 1. characteristics of interviewee

순번	나이	입국 년도	한국거주 기간	출신국가	면접 방식
1	36	2004	11년	중국 길림성 (조선족)	대면
2	35	2004	11년	일본	대면
3	27	2008	7년	베트남	대면
4	25	2008	6년	베트남	대면
5	30	2009	5년	베트남	대면
6	28	2010	5년	베트남	대면
7	28	2009	5년	네팔	대면
8	28	2010	5년	베트남	대면
9	25	2011	4년	베트남	대면
10	27	2012	3년	캄보디아	대면
11	37	2001	14년	중국 길림성 (조선족)	대면
12	40	1998	17년	중국 길림성 (조선족)	대면
순번	NGO명		활동기간	면접대상	면접 방식
13	한국타리 여성 나눔회		2008년~ 2014년	회장	대면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질문은 9개로 구성하였으며, 면접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준비된 질문에 구애받지 않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으로 질문을 진행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심층면접 방식을 활용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논문은 질적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정책설계를 통한 소셜 포지셔닝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에 주도적 역

활을 한 정책 형성가의 존재를 연구하며, 위의 기준으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여론과 사건의 변화에 따른 정책설계의 변화를 살펴봄, 다문화가정의 소셜 포지셔닝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표 2. 인터뷰 질문지
Table 2. interview questionnaire

질문 순서	질문내용
1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2	한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3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4	한국에 처음 왔을때 좋은점과 나쁜점은 무엇입니까?
5	한국에 처음 왔을때 정부 지원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6	한국에 처음 왔을때 주변사람들과 가족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7	현재 만족하는 점과 부족한 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	현재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9	현재 주변사람들과 가족들의 인식은 어떻습니까?

IV. 분석 결과

1. 다문화가정의 태동기(1990년대)

다문화가정의 태동기에는 제천시 지역에 사건이나, 여론, 정책은 전무하였다. 즉, 사회와 정부의 관심이 없었던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다문화가정은 존재하고 있었지만 소셜 포지셔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단 스스로 적응하지 못하면 낙오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이것은 ‘후배 결혼이주 여성에게 한국 적응을 위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가’ 라는 질문의 답변에서도 나타난다.

“본인이 스스로 버텨야 해요...(중략)... 너가 많이 노력을 해라. (한국 사람이 싫어한다고 해서 같이 싫어하지 말고) 한국 사람도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노력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면접자 12).

면접자 12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버텨야 할 것을 조언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이며, 정부의 정책대상이 아니었던 당시의 다문화가정 집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결혼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통해 다문화가정 태동기의 다문화가정 소셜 포지셔닝은



● 다문화가정의 Social Repositioning
그림 1. 다문화가정 태동기의 다문화가정 소셜 포지셔닝
Figure 1. Social Position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Early Age of Multicultural Families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다문화가정의 양적 성장기(2000~2005년)

제천시 관련, 다문화가정 기사를 검색한 결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천시에 대한 정부정책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천시 사회와 정부는 다문화가정을 정책 대상 혹은 관심을 가질만한 집단으로 인식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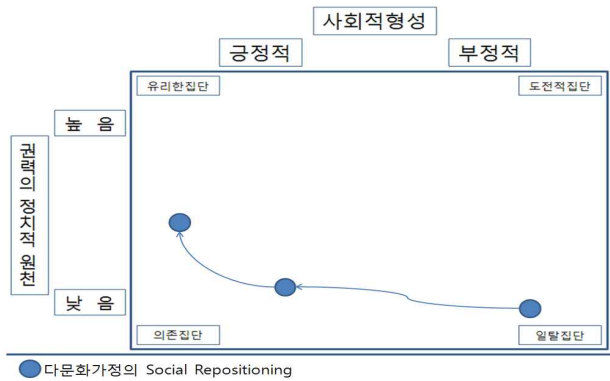
● 다문화가정의 Social Repositioning
그림 2. 다문화가정 양적 성장기의 다문화가정 소셜 포지셔닝
Figure 2. Social Position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Quantitative Growth Period of Multicultural Families

3. 다문화가정의 질적 성장기(2006~2011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다문화가정의 혼인 건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총 혼인건수 대비 국제결혼비율은 10%~12%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였다. 이러한 다문화가정의 증가추세는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

였으며, 2006년 하인스위드의 방문은 그 기폭제가 되었다. 하인스위드의 방문으로 결혼이주 여성과 그들이 속한 다문화가정 집단에게 연될 되었으며, 다문화가정의 안정된 정착을 위한 지원 정책들이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소셜 포지셔닝은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의 정치적 힘을 가지며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는 유리한 집단으로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다문화가정의 Social Re positioning
 그림 3. 다문화가정 질적 성장기의 다문화가정 소셜 포지셔닝
 Figure 3. Social Position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Qualitative Growth Period of Multicultural Families

4. 다문화가정의 반감기(2012년 이후)

정부정책과 예산의 증가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그러나 정책의 증가가 다문화가정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 왕따와 폭행에 의한 방화사건으로 검거된 다문화가정 2세 소년은 정신과치료, 교정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회의 관심과 보호를 받았으나 결국 보호관찰이 끝난 후 다시 가출하였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다문화가정 2세에 대한 보호와 교육이 조기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다양한 지원책도 중요하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반 다문화주의의 팽창은 계속 될 것이라는 것도 주지시켜준다. 외국인 혐오증을 뜻하는 제노포비아와 중국인을 뜻하는 영어 차이니즈의 합성어인 ‘차오포비아’ 라는 합성어가 등장하게 된 것은 그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제천시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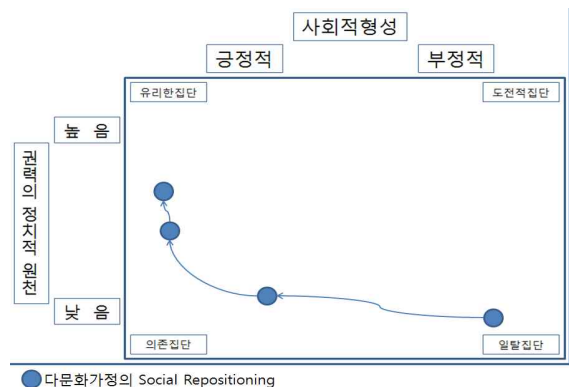
“저희는 결혼이민자니까 다르지 애들은 애들이 어울려서 거기서 배우고, 한국 애들이랑 다른 거 없어요. 엄마만 따지면 다문화 가정이지만 애들은 그런 것에 상처 받아요.

저희에도 엄마 나는 베트남에서 태어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5살인데... 설명해줬어요.

엄마는 베트남에서 태어났지만 너는 한국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런 이야기 들으면. 그때 듣고 서운했죠. 저는 아직 애가 유치원생이라 그런 거 잘 모르지만 나중에 좀 더 크면 주위 애들이 애한테 어떻게 반응할지 많이 걱정 되요...”(면접자 3).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정부의 정책들로 쉽게 바뀔 수 없는 부분이다. 인천의 함박 초등학교 4~6학년에는 또래 조정관이라는 감투가 있다. 어른들은 아이들끼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른을 찾아오길 바라지만 실제로 또래집단은 그 안에서 일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에따라 인천 함박초등학교는 또래 중 친구관계가 좋으며 공정한 학생을 선발하여 또래 조정관 교육을 시키고, 이들의 활동으로 또래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활동을 시작했다. 또래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일탈을 막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다문화가정 인식에 대한 조기교육이 바탕되어야만 반 다문화주의를 넘어 다문화사회로의 정착률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의 반감기’ 에서 다문화가정의 소셜 포지셔닝은 ‘다문화가정의 질적 성장기’시대의 유리한 집단의 위치보다 조금 더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고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다문화가정의 질적 성장기’ 보다 둔화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의 소셜 포지셔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4>와 같다.



● 다문화가정의 Social Re positioning
 그림 4. 다문화가정 반감기의 다문화가정 소셜 포지셔닝
 Figure 4. Social Position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Half-Cold Period of Multicultural Families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는 제천시 다문화가정의 소셜 포지셔닝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정책형성가와 정부정책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각 시기별 분석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소셜 포지셔닝 변화를 파악했으며, 이러한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방송매체나 신문을 통한 여론의 형성, 그리고 그에 따른 정부정책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즉, 도구적 성격으로서의 '결혼이주여성' 중심이었던 일탈집단인 다문화가정은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 긍정적인 집단으로 이동을 준비하게 되었고, 다문화시대라는 사회적 변화의 흐름과 함께 점차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집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찾고자 했던 다문화가정의 소셜 포지셔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형성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다문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3D직종의 인력부족, 저출산, 농촌의 성비불균형 그리고 정치적 힘을 높이려는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 등의 모든 사건과 집단이 다문화가정의 소셜 포지셔닝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형성가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990년대의 결혼이주의 주된 이유였던 본인의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목적에서의 직업을 넘어 가족의 미래를 위한 목적으로서의 직업으로 변화한 모습을 통해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은 스스로 한국 국민이라고 느끼고, 가정의 삶을 유지·개선하는데 있어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소셜 포지셔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부와 각 부처는 정책과 사회적 사건 그리고 여론의 형성에 의해 만들어진 소셜 포지셔닝이 또 다른 여론과 사건, 정책에 의해 그 방향성이 바뀔 수 있음을 인지하고, 다문화사회가 정착되는 사회를 위하여 다문화가정의 안정화와 이들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한 근원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ferences

[1]. M. Moon, A Study on the Form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centering on conflict and solution Hoseo University M.A. thesis, Seoul, 2010.

[2]. M. H. Kim, Policy Studies from a Social Formative Perspective-The Social Formation Theory and Application of Targeted Groups.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Vol.14, No3, pp.31-56, 2005.

[3]. M. H. Kim, H. G. Ahn, Changes in Policy by Changing Social Perception of Target Groups: Special Act on the Prostitution of Sex Trade.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Vol.40, No4, pp.469-490, 2006.

[4]. H. S. Cheon, A Study on the School Life of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Modern Society and Multiculturalism," Vol.2, no2, pp.416-444, 2012.

[5]. M. J. Lim,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Child Care Centers for Multi-cultural Families "Factory research." Issue Vol.1, pp.86-107, 2008.